

제12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 12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으로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hitectural Regional Council Asia : ARCASIA)는 아시아지역 건축사간 정보교류와 친선도모를 위하여 아시아 건축사 대회(Asian Congress of Architecture : ACA)와 포럼(Forum)을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2003년은 포럼이 개최될 차례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셰라톤 호텔에서 제 24차 아카시아 이사회와 제 12차 아카시아 포럼이 개최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사회와 포럼에 공식대표로 이세훈 회장, 이근창 국제위원장, 김지덕 고문, 민규암 위원, 김홍일 위원과 학생대표로 선발된 이원석(홍익대졸업), 김성훈(홍익대 대학원)군을 파견하였다.

이세훈 회장, 이근창 국제위원장, 김지덕 고문, 민규암 위원은 12월 7일, 8일, 9일 개최되는 이사회와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12월 6일 한국을 출발하였고 필자와 학생대표는 포럼만 참석하기 때문에 12월 8일 출발하였으며, 12월 14일 대표단은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림 1. 개막식장. 방글라데시-차이나 협력 컨벤션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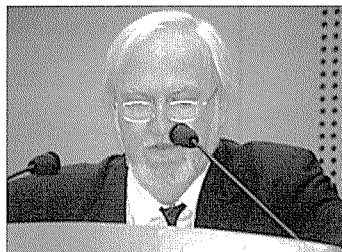


그림 2. 안소니 비들러, 주제발표

포럼 개막식

12월 10일 포럼 개막식은 방글라데시-차이나 컨벤션 센터에서 오스만 파룩(Osman Faruk)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모바셰르 후세인(Mobassher Husain)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장의 인사말을 서두로 배리 윌(Barry Will) 아카시아 회장, 라비울 후세인(Rabiul Housain) 포럼 위원장등 귀빈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개막식 마지막 순서는 현 쿠퍼 유니온(Cooper Union)학장이며 건축역사학자이자 비평가인 안소니 비들러(Anthony Vidler)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개막식이 끝나고 참석한 건축사들은 루이스 칸이 설계한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건물을 방문하였다. 현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회의사당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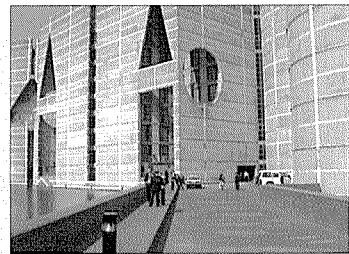


그림 3. 국회의사당. 루이스 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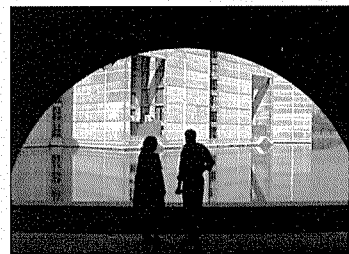


그림 4. 국회의사당. 루이스 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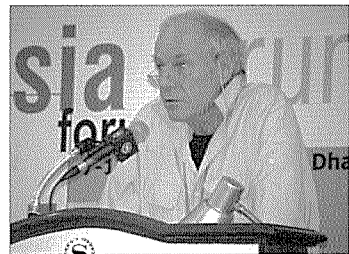


그림 5. 악셀 호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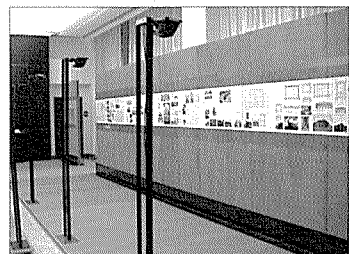


그림 6. 건축전시회

에 증축계획을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는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고자 정부와 반대 입장에 처해있어서 아카시아 포럼 참석 건축사들의 방문은 국회의사당이 세계적인 건축으로 건축사들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일종의 시위와 같은 방문의 성격을 띠었다.

12월 10일 오후 포럼

금년도 아카시아 포럼의 주제는 "세계화와 아시아 건축" (Globalization and Asian Architecture)이며, 다시 6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포럼이 진행되었다. 12월 10일 오후에는 "문화와 정체성(Culture and Identity)"이라는 소주제 하에 두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참여 연사는 제 1세션에 카지 카리드 아슈라프(Kazi Khaleed Ashraf), 악셀 슈츠(Axel Schultz), 레이안 바르리 고르크(Reyhan Varli Gork)가 발표하였고, 제 2세션에는 하비불 하크 콘드커(Habibul Haque Khondker), 카레다 라시드(Khaleda Rashid), 아르만 호세인 초드러리(Armaan A Hossain Chowdhury)가 발표하였다.

12월 11일 포럼

포럼은 오전 오후 각 2세션이 진행되었다. 9시부터 시작한 제 3세션은 "도시와 그 배경" (City and its Context) 으로 아시아 건축행사에 빠지지 않고 연사로 등장하는 싱가포르의 태 썩순(Tae Kheng Soon)과 방글라데시의 카뎀 알리(Khadem Ali)가 발표하였다.

제 4세션의 소주제는 "사회적 분열과 책임있는 디자인" (Social Divide and Responsive Design)으로 연사는 터키 건축사 수하 오즈칸(Suha Ozkan), 다카대학교 경제학교수 무자페르 아마드(Muzaffer Ahmad) 그리고 캐나다 맥길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인 사친 나카르(Sachin Nakar)였다. 특히 나카르는 제3세계 불법거주자들이 많은 도시에 비정부기구(NGO)가 주택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인도의 뭄바이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점심 식사 후 제 5세션이 계속되었다. 주제는 "재료와 기술"(Materials and Technology)이

있고 연사는 종이를 주제로 건축을 하는 일본의 시게루 반(Shigeru Ban), 방글라데시 건축사 바쉬르 하크(Bashiru Haq) 그리고 마필 아리와 샴스 만수르 가니(Mahfil Ali & Shams Mansoor Ghani)였다. 특히 종이를 구조재로 사용하여 건축을 하는 시게루 반이 재해지역 난민들을 위해 설계한 종이튜브를 이용한 텐트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지구촌에 발생하는 수많은 이재민을 위한 거주공간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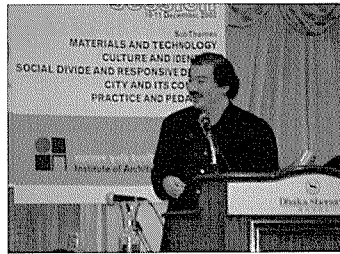


그림 7. 시게루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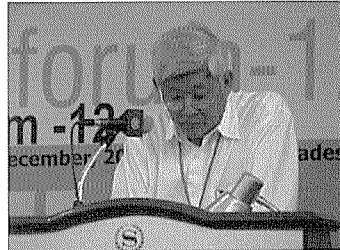


그림 8. 태 썩순

마지막 제 6세션은 "실무와 교육" (Practice and Pedagogy)이라는 소주제하에 인도의 대표적 건축 중 하나인 발크리쉬나 비트라다스 도시(Balkrishna Vitladas Doshi), 방글라데시 건축사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아드난 모르셰드(Adnan Morshed), 그리고 엠디 이스티크 자히르(Md. Ishtique Zahir)가 발표하였다.

문화행사

문화행사는 12월 10일 저녁 7시부터 다카 구시가지 내에 있는 랄바그 요새(LALBAG FORT)에서 포럼 참석자를 위하여 개최되었다.

랄바그 요새는 무굴제국 오랑제브 아람지르(Aurangzeb Alamgir)의 아들인 벵갈왕 모하마드 아잠(Mohammad Azam)이 1678년부터 건축

을 시작하였으며 크기는 약 1082×800피트이고, 요새 안에는 모스크, 목욕장, 왕의 거주공간, 무덤 등이 있다. 이슬람 건축의 전형으로 창살의 섬세한 기하학 문양이 돋보인다.

공연은 레이저광선과 효과음향을 곁들여 무굴 제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빛과 소리" (light and Sound) 공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민속춤과 민속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빛과 소리 공연"은 이번 아카시아 포럼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 창설 이래 처음 있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공연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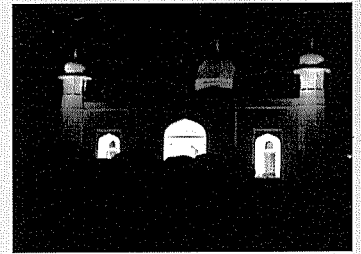


그림 9. "빛과 음향"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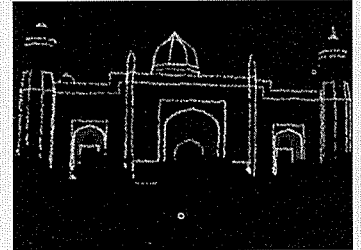


그림 10. "빛과 음향" 공연



그림 11. 문화의 밤 공연

우정의 밤

12월 11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카 웨라톤 호텔 겨울정원에서 아카시아 포럼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와 방글라데시 건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정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추첨에 의해 순서가 정해지고 각각 대표들은 각자 준비한 장기를 선보였는데 인도대표의 전통춤 공연은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는 뛰어난 공연이었다.

한국대표단은 몸을 이용한 알파벳으로

KOREA 글자를 만들고 월드컵 축구응원가를 불러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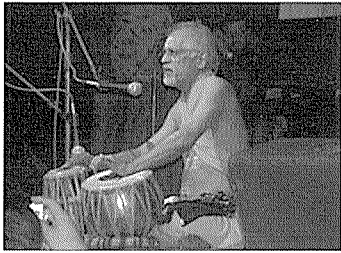


그림 12. "우정의 밤" 방글라데시 대표 공연



그림 13. "우정의 밤" 인도대표 공연

아시아 퍼시픽 건축대학특강

아카시아 이사회 진행 중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는 건축대학 학생을 위한 특강에 참석한 건축사에게 요청하여, 이근창 위원과 말레이시아의 지미 림 위원이 아시아 퍼시픽 건축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하였다. 지미 림은 열대기후인 말레이시아에서 건축한 목조 주택을 소개하였고, 이근창 위원은 간략한 한국근대건축의 형성에 대하여 소개한 후 자신이 디자인한 대형 프로젝트위주의 강연을 하였다. 학생들의 열의는



그림 14. 아시아퍼시픽대학 특강. 이근창위원



그림 15. 아시아퍼시픽대학 특강. 지미 림

강연 후 다양한 질문으로 이어졌고 외국인 건축사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후기

방글라데시는 경제적으로 발전이 덜 된 나라이다. 시내에 나가면 사람이 끄는 리카와 삼륜오토바이를 이용한 택시가 주된 운송수단으로 자동차 보다 훨씬 많이 다니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는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아시아의 부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아카시아에서도 영향력 있는 국가의 위치에 있다. 곧 우리도 아카시아회의를 개최해야 될 차례인 국가로서 이번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의 행사 진행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다. (김홍일 / 본협회 국제위원)

제24차 아카시아 이사회

ARCASIA Council Meeting

제24차 이사회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위치한 웨라톤 호텔에서 2003년 12월 8, 9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이세훈 회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고문, 민규암 위원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아카시아 회장인 Barry Will의 개막 인사에 앞서, 이사회에 그간 공헌이 많았으나 이제 우리와 같이 하지 못하는 이정근 박사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 소개와 함께 추모 묵념으로 시작하였다.

회장은 개막 인사에서 세계 곳곳에서의 테러에 의한 정치적인 불안과 아시아권의 불안정한 경제, SARS에 의한 회원국 간의 교류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아카시아 회원국 총인구가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을 볼 때 금번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에서 선정한 주제는 시기 적절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회원국이 적극 참여해준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특히 미래의 건축 설계의 가장 큰 시장으로 아시아 국가가 대두할 것을 예측하고 회원국들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였다.

이어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의 Hussain 회장은 건축제도가 미비한 방글라데시에서 협회 창립 이래 처음이자 최대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여 본 행사를 통해 정부 부처에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다카시내의 최대의 건물이자 건축사의 의지와 작품성이 뛰어난 정부청사 건물(루이스-칸이 설계)의 무절제한 유지보수로 작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조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CAA 회장의 환영 축사를 끝으로 개막행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들어갔다. 먼저 이사회의 순서와 2002년 인도 델리 회의록이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고, 재무담당으로부터 회비 징수 상황과 함께 재정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각 Zone별 부회장의 보고에서는 Zone "A" 부회장의 보고만 있었고, Zone "B"와 Zone "C"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Zone "A" 부회장인 인도의 Balbir Verma는 그 지역의 최대의 관심을 서로의 전문 용역업의 문호개방과 더불어 기술교류와 건축사의 사회 기여 등을 강조하였다.

이어 각 회원국별 지난 일년간 있었던 주요사항을 보고하였다. 우리측에서는 건축사의 상호 인정과 관련하여 교육제도의 5년제 전환과 이에 따른 교육인증원 신설을 위한 준비, 천재지변시 비상 대책 Program, 새로운 회관 건립을 위한 준비 등을 언급하였다.

인도 건축사협회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한 WTO-GATS 관련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GATS의 정의인 다국적 협상에 의한 최혜국 대우에 대한 내용과 세부사항으로 Mode별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또는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더불어 정책의 기본 협상 방향인 투명성, 국가의 정체성, 최혜국 대우와 함께 양허, 규정, 인정 등을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국가간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의한 인식과 예상 성장률, 국가별 전문영역 등 UIA PPC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항목들을 설명하고 본 회원국의 공조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각국의 대표들은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본 내용이 UIA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APEC, SARCH 등 서로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보아가며 다루기로 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관리하고 있는 Resource data bank에 관한 보고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과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분기별 발간되는 아카시아의 건축작품 관련 "Architecture Asia"에 대한 보고에서는 많은 회원국의 게재를 요청하였으며, 2004년 1분기는 교통시설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잡지는 현재 각 회원국에서 일정량 무료로 배부되고 있으며, 구입을 원하는 개인에게는 회원국 협회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카시아상 건축 작품 선정에 대한 보고에서는 먼저 각 회원국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출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선정을 위한 제반 경비가 약 33,000불 소요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추후 아카시아상 경비를 위한 후원업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Zone별 3인과 아시아지역 외 건축사인 요르단의 Badran, 비건축전문가인 Anisuzzaman과 아카시아상 Convenor 인 Mr. Wares, 총 6인이

있고, 각 분야별 선정 작품은 B1(Commercial/ Shopping), B2(Resort building, Hotel, Other recreation), B4(Sport and Air terminal) 부분은 최우수작이 없었고, 본 협회에서는 11개 작품을 출품하였으나 A1(Single family housing) 부분에서 최상영 건축사 작품 민마루가에 금상, B3(Institutional/School/Religious/Health, Hospital) 부분에서 백문기 건축사의 원당 천주교 작품이 은상을 수상하였다. 아쉬운 점은 규정에 2개 작품 이하를 제출하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협회에서 제출한 작품은 B3에 5개 작품이 집중되어 제출하였고, 전통건물과 리모델링 부분에는 한 작품도 제출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특이한 점은 일본은 3개 작품을 제출하여 모두 시상 대상에 선정되었다. 더불어 다음 이사회회에서 2개 부분(조경설계와 실내건축설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상정하기로 하였다. 본 시상은 2004년도 총회에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준비를 마카오 건축사협회에 요청하였다.

이에 2004년 아카시아 총회에 대한 마카오 대표의 준비상황 설명이 있었고, 총회일자는 이슬람 국가의 종교행사기간(라마단)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자문인 홍콩의 Ronald Poon은 회원국의 출입국의 원만한 조치와 문제가 있는 경우 홍콩을 거쳐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언하였다.

2006년 아카시아 총회 개최 후보로는 중국과 스리랑카가 유치를 경합하였으나 스리랑카에서 포기함으로써 중국으로 결정되었다. (2005년 아카시아 포럼은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바 있음.)

아카시아 Fellowship 의장은 현 의장인 말레이시아의 Jimmy Lim이 재선되었고, 올해 자문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자문회의에는 현 회장을 포함한 24명과 함께 방글라데시 내의 학생 대표 3명이 참석하였다.

의장은 금회 방글라데시의 모든 행사를 학생들이 지원하여 봉사하는 모습은 다음 회의를 준비하

는 국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본 자문회의의 주요 사업으로 "Let's touch their young hearts" Program과 "아시아 건축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본 Program의 일환으로 Asia Pacific 건축 대학에서 실무건축사의 작품의 접근 방법과 지속 가능한 건축물의 실례를 갖고 본 위원과 자문회의의 회장인 Larry Lim의 강의가 3시간에 걸쳐 강의를 하였다. 본 강의는 미리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급조하여 시행하였으나 100여명의 건축 학도들이 경청하였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축관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시도된 강의지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무건축사와 학습중인 학생들 간의 간격을 좁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교육위원장인 일본의 George Kunihiro는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아카시아 Website에 수록하겠다고 하였으며, 회원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게재하기로 하였다. 특히 마카오에서 설립 준비중인 건축대학 설립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기타 안건으로는 UIA와 관련된 모든 행사 또는 공지사항들이 본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회장단에게 UIA에 접촉하기로 하였다. 회장 선출을 위한 정관을 "회장 입후보자는 속해 있는 협회의 추천과 제3협회의 동의에 의해 후보 등록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아카시아 회원국으로 활동하지 않는 아시아권의 일부국가들(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접촉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다음 회기의 회장은 필리핀의 Yolanda, D Reyes와 스리랑카의 Lakshman Alwis가 경합하였으나 투표 회원국 16개국 중 9표를 득표한 Yolanda, D Reyes가 선출되었고 임기는 올해부터 2년이다.

브르나이와 러시아에서 본 기구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브르나이는 최소 건축사 미달로 러시아는 정확한 정보 미제공으로 보류되었다.

본 이사회는 최초로 국제 행사를 치른 방글라데시의 경제수준과 도시환경에 비해 모든 순서 순서를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준비되었다. 특히 Forum 행사에서는 여러 회원국에서 많은 석학들이 참여하여 세계화에 따른 회원국의 연구사례가 진지하게 밤늦은 시간까지 발표되었고, 국제행사에 보기 드물 정도로 국내 건축사와 학생들의 참여가 인상적이었다.

또한 행사 진행을 돕는 도우미들은 건축학을 전공하는 자원봉사 학생을 훈련시켜 투입함으로써 학생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돋보였다.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는 본 행사를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는 중간 매체로 하였고, 특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아시아 국가의 건축 활동사항을 홍보하기도 하여 국내 건축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본 협회도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참여하여 국내에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이근창 / 본협회 국제위원장)

교육위원회 회의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회의가 2003. 12. 8~9일 양일간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웨라톤호텔 2층 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마카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의 사회는 위원장인 일본의 조지 구니히로가 맡았고, 몇 가지 안건에 대한 내용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우선 지난번 델리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승인되었으며, 위원장 조지 구니히로에 의해서 ACAE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국가간 정보 교류 및 ACAE의 사업내용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또 그동안 진행시켜 온 국가간 주요건물의 타임라인 차트를 완성시키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출된 상태이며, 기타 미제출 국가의 최종 제출을 독려했다. 궁극적으로는 출판사를 찾아서 이 내용을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APAE(아카시아 건축교육 프로그램): 각 국가에서 원하는 대학을 찾아서 일정과정을 아카시아 건축교육 프로그램으로 명명하기로 하고, 이를 각국의 학생들이 가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유망 가능한 대학의 리스트를 정리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끝으로 일본 교수 노부아키 푸루야의 UIA/UNESCO 교육평가기준에 대한 최근 소식 및 APEC 건축회의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민규암/본협회 국제위원)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6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6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8-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8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6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신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8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6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